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1) :75~87, 2014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5(1) :75~87, 2014
http://dx.doi.org/10.7856/kjcls.2014.25.1.75

초등학교 아동의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장 영 애†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ple Intelligence, Prosocial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Jang, Young Ae†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ple intelligences, prosocial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s. The sample included 367 students from two elementary schools,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multiple-intelligence index, the prosocial behavior inventory, and the school adjustment index.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test, a one-way ANOVA (Duncan's test),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udents' prosocial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multiple intelligences in terms of their sharing, kindness, cooperation, help, sympathy, and protection.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school adjustments according to their multiple intelligence in terms of their adjustments to their teachers, friends, studies, and rules and events. The students' multiple intelligence was a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ir prosocial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s. In particular, their interpersonal intelligences, intrapersonal intelligences, and linguistic intelligence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ir prosocial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develop their multiple intelligence to facilitate their prosocial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s.

Key words: multiple intelligence, prosocial behavior, school adjustment, elementary school student

Ⅰ. 서론

최근 지능 연구에 있어서 지능의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 기존의 협소한 지능의 개념으로 아동들의 지적인 측면을 평가하거나 교육적 성취를 예언하는 일에서 벗어나 개인이 처

접수일: 2014년 2월 6일 심사일: 2014년 2월 13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9일
†**Corresponding Author:** Jang, Young Ae Tel: 82-32-835-8254
e-mail: chae@incheon.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 상황 속에서 발휘하는 정신적인 개념으로 지능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이론이 Howard Gardner가 제안한 다중지능 이론이다(Kim 2009). Gardner(1983)는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능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다중지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욕구, 흥미, 재능, 당면하고 있는 문제 등에 있어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잠재력 개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개인의 존중과 개인차의 인정, 학습동기의 유발, 개별화된 수업 등 새로운 방법론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Kim 1998).

Gardner는 지능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인간능력의 범위들을 여덟 개의 요소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인간지능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다중지능이론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산물을 생산하는 능력을 지적능력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기존의 지능관과 지능측정 방법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새롭게 등장한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언어적 능력과 수리적 능력과 같은 특정 영역을 강조하는 기존의 지능개념에서 벗어나 여러 측면의 인간의 재능과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Gardner가 제시한 다중지능의 하위 영역으로는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 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 등이 있다(Armstrong 1994). 이러한 Gardner의 다중지능 이론은 어느 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뒤떨어 질 수 있으며, 어느 한 분야에서 열등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바, 그러한 강점의 분야를 그들의 지능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인 능력을 찾고, 나아가 아동 개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돕도록 한다는 데에서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다중지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발달경향과 성별, 집단 급별 등 집단 차이에 의한 다중지능의 차이를 보는 연구(Kim & Kim 1996; Ru 1996)이다. 둘째는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다양한 학습방법, 교육과정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Lee 1997; Son 1998; Jung 1998; Ghamrawi 2014)이며, 셋째는 다중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환경 등 다양한 환경변인 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Kim 2000b; Cho 2001; Baek 2003)이다. 넷째는 다중지능과 IQ, 창의성, 학업성취도 등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Choi 2001; Lee 2001; Lee 2002; Chan 2003)등이다. 이중 다중지능과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아동의 다중지능과 발달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게 되며, 아동의 행동은 성장함에 따라 가정, 교사, 또래, 친구, 이웃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외부의 영향들은 아동행동 사회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도덕성이나 사회성은 아동의 대인관계에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작용하는데 의사소통과 각종 관계가 이루어질 때 행위의 규칙들, 보호나 배려의 감정, 책임감 등으로 존재하게 된다(Damon 1988).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적 풍토로 인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적인 능력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며 도덕적, 사회적 발달보다는 학문적, 인지적인 능력을 더 중시하고 있다.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붕괴의 현상은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며 자신이나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위기감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Lee 2001).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 개개인의 전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인지적인 능력뿐 아니라 배려나 보살핌, 감정이입, 존중과 책임감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들을 모두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내적변인인 개개인의 능력과 관계되는데 이런 능력은 다중지능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Ban

2005). 일반적으로 지적발달과 친사회적 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isenberg 1992).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으로 탈중심화 할 수 있는 지적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성, 도덕성 발달의 기초가 되는 개인내 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은 유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도덕적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관계성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Lee(2001)는 아동의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다중지능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중지능의 구성요소는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개인지능, 대인지능, 언어지능, 개인이해지능이 다른 지능 보다 친사회적 행동과 더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Kwon (2003)은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변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고, Kim(2003)은 유치원 아동의 경우 다중지능 중 공간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등이 친사회적 행동인 개인정서 조절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Ban(2005)은 유아의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논리수학지능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유아가 어떤 사건과 사물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즉, 지적능력이 높은 유아가 타인의 요구, 역할수용, 도와주는 방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Suh & Kim (2009)은 만 4, 5세 외동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다중지능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친사회적 행동 중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다중지능 중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이 높은 관계를 나타냈으며, 친사회적 행동 중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Lee(2012)는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중지능 프로그램의 투입이 유아의 개인정서 조절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 교육기관적응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아동은 상당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 만큼,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성장, 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경험을 통한 단체생활의 규칙을 익히고, 성취감과 협동심을 기르며, 바람직한 자아개념과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사회 환경에 빠르고 조화롭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Park 2007).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교사, 친구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개념, 행동특성, 학업성적 뿐 아니라 전체적인 개인의 성장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An(1985)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어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만, 무능력, 자포자기, 소극적이 되고, 공격적, 파괴적 행동을 보이거나 비행행위까지 보이게 된다. 이는 결국 자아개념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교는 물론 아동자신에게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다중지능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데 Yun (2005)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다중지능의 언어지능, 대인관계 지능, 공간지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Kim(2009)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다중지능과 학교생활적응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매우 높은 상관이 있다고 했다. 특히, 개인이해지능이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관계가 있으며, 다른 모든 지능들도 학교생활적응과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해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높고 자기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해결하는 적응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Jung(2006)은 유아의 다중지능과 초등학교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다중지능은 초등학교의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다중지능 중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간지능, 개인내지능은 초등학교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지적능력을 지능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는 Gardner의 다중지능 개념에 기초하여, 아동의 다중지능이 초등학교 아동의 다른 발달 특성, 특히 이시기의 중요한 사회적 발달 특성인 친사회적 행동,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다중지능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친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아동들이 학생, 교사, 학급생활 등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당면 문제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학교생활 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학교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의 다중지능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다중지능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다중지능이 친사회적 행동,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I지역에 위치한 2개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367명이다. 연구 대상아동은 4학년이106명(28.9%), 5학년이 136명(37.1%), 6학년이 125명(34.1%)이며, 남학생이 179명(48.8%), 여학생이 188명(51.2%)이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다중지능검사, 친사회적 행동검사, 학교생활적응검사 이다.

1) 다중지능검사

본 연구에서는 Moon et al. (2002)이 개발한 초등학생용 다중지능검사를 사용했다. 본 검사는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의 8가지 다중지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검사는 5단계의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처리되었다. 다중지능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음악지능 .78, 신체운동지능 .74, 논리수학지능 .79, 공간지능 .74, 언어지능 .80, 대인관계지능 .70, 개인이해지능 .70, 자연지능 .72로 나타났다.

2) 친사회적 행동 검사

친사회적행동 측정검사는 Einsenberg(1982)의 검사를 Kim(1995)이 번안한 친사회적 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도움주기, 공감하기, 보호하기, 나눠주기, 친절하기, 협력하기의 여섯 개 하위요인, 총18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아니다’ 1점에서 ‘자주’ 5점으로, 최하 18점에서 최고 90점의 점수가 주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친사회적행동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도움주기 .73, 공감하기 .72, 보호하기 .77, 나눠주기 .71, 친절하기.78, 협력하기 .72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 검사

본 검사는 Moon(2004)의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Moon(2004)이 Sin(1995), Kim(2000a)의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참고로 문항을 초등학생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검사는 담임적응, 교우적응, 학습적응, 학교 규칙

및 행사 적응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검사는 4단계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생활적응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담임적응 .86, 교우적응 .75, 학습적응 .74, 학교 규칙 및 행사 적응 .81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I시 소재 2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4, 5, 6학년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지는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의 협조 아래 본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총 400부를 배포하여, 그 중 회수된 검사지 395부(회수율 98.8%)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검사지 28부를 제외한 총 36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t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다중지능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차이

아동의 다중지능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다중지능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의 다중지능에서 음악지능이 상인 집단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하위 변인인 도

Table 1. Differences in students' prosocial behaviors according to multiple intelligence

		Help			Sympathy			Protection		
		M	t/F	D	M	t/F	D	M	t/F	D
Musical	High	11.13		C	12.05		C	10.16		C
	Middle	10.32	23.953***	B	10.99	26.643***	B	9.19	25.458***	B
	Low	9.20		A	9.94		A	8.22		A
Bodily kinesthetic	High	11.21		C	11.87		C	9.98		C
	Middle	10.17	24.168***	B	11.04	20.388***	B	9.29	20.505***	B
	Low	9.32		A	10.03		A	8.28		A
Logical mathematical	High	11.61		C	12.30		C	10.36		C
	Middle	10.29	54.725***	B	10.98	40.612***	B	9.19	42.842***	B
	Low	8.88		A	9.76		A	7.96		A
Spatial	High	11.33		C	12.17		C	10.02		C
	Middle	10.08	33.135***	B	10.90	34.319***	B	9.11	19.721***	B
	Low	9.24		A	9.94		A	8.41		A
Linguistic	High	11.30		C	12.23		C	10.15		C
	Middle	10.28	39.361***	B	10.99	47.120***	B	9.13	27.637***	B
	Low	9.01		A	9.64		A	8.21		A
Interpersonal	High	10.85		C	11.70		C	9.71		C
	Middle	9.29	35.918***	B	10.02	45.143***	B	8.43	25.483***	B
	Low	8.21		A	8.57		A	7.43		A
Intrapersonal	High	11.36		C	11.87		C	10.13		C
	Middle	10.09	48.859***	B	11.17	32.017***	B	9.11	34.380***	B
	Low	8.89		A	9.69		A	8.05		A
Naturalist	High	10.72		B	11.64		B	9.65		C
	Middle	10.17	17.001***	B	10.52	16.857***	B	8.92	13.802***	B
	Low	8.98		A	10.05		A	8.20		A

Table 1. Continued

		Sharing			Kindness			Cooperation			Total		
		M	t/F	D	M	t/F	D	M	t/F	D	M	t/F	D
Musical	High	12.07		C	11.72		C	11.94		C	69.63		C
	Middle	10.99	26.301***	B	10.75	25.766***	B	11.07	20.453***	B	62.98	48.477***	B
	Low	10.05		A	9.48		A	10.40		A	57.38		A
Bodily kinesthetic	High	12.09		C	11.56		C	11.76		C	68.53		C
	Middle	11.01	28.307***	B	10.76	23.737***	B	11.17	15.376***	B	63.47	38.969***	B
	Low	10.03		A	9.44		A	10.44		A	57.53		A
Logical mathematical	High	12.21		C	11.71		C	12.16		C	70.72		C
	Middle	11.12	40.065***	B	10.79	26.236***	B	11.07	34.988***	B	63.24	76.296***	B
	Low	9.79		A	9.47		A	10.21		A	56.25		A
Spatial	High	12.10		C	11.70		C	11.90		B	69.42		C
	Middle	10.90	29.622***	B	10.67	26.255***	B	10.94	19.221***	A	62.62	51.042***	B
	Low	10.10		A	9.56		A	10.53		A	57.59		A
Linguistic	High	12.11		C	11.47		C	12.10		C	69.52		C
	Middle	10.91	33.225***	B	10.84	21.655***	B	11.07	42.456***	B	63.17	62.906***	B
	Low	9.97		A	9.48		A	10.08		A	56.51		A
Interpersonal	High	11.71		C	11.30		C	11.53		C	66.92		C
	Middle	9.96	40.813***	B	9.61	29.800***	B	10.51	21.372***	B	57.91	62.756***	B
	Low	9.04		A	8.64		A	9.68		A	51.57		A
Intrapersonal	High	12.23		C	11.67		C	12.03		C	69.26		C
	Middle	10.92	53.875***	B	10.42	26.885***	B	10.88	36.099***	B	62.57	66.805***	B
	Low	9.63		A	9.52		A	10.20		A	56.06		A
Naturalist	High	11.53		B	11.11		B	11.51		B	63.30		C
	Middle	10.98	13.955***	B	10.66	14.379***	B	10.90	9.139***	A	62.32	20.885***	B
	Low	9.94		A	9.31		A	10.48		A	57.23		A

***p<.001.

D: Duncan's test (A<B<C).

움주기, 공감하기, 보호하기, 나눠주기, 친절하기, 협력하기와 친사회적 행동 총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집단, 하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에서 모두 같은 결과를 나타내 아동의 다중지능 이 높을수록 도움주기, 공감하기, 보호하기, 나눠주기, 친절하기, 협력하기와 친사회적 행동 총점이 모두 높음을 알 수 있다.

2. 다중지능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차이

초등학생의 다중지능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중지능의 모든 하위영역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아동의 다중지능에서 음악지능이 상인 집단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하위 변인인 담임적응, 교우적응, 학습적응, 규칙 및 행사적응, 학교생활적응 총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집단, 하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타나 아동의 다중지능이 높을수록 담임적응, 교우적응, 학습적응, 규칙 및 행사적응, 학교생활적응 총점이 모두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Differences in students'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multiple intelligence

		Teachers			Friends			Studies			Rules and events			Total		
		M	t/F	D	M	t/F	D	M	t/F	D	M	t/F	D	M	t/F	D
Musical	high	40.28		C	39.43		C	34.74		C	36.76		C	150.75		C
	middle	36.78	29.363***	B	35.84	44.448***	B	32.11	40.468***	B	34.51	23.757***	B	139.57	48.572***	B
	low	33.69		A	33.22		A	29.31		A	32.24		A	128.13		A
Bodily kines-thetic	high	39.92		C	39.26		C	34.89		C	36.73		C	150.79		C
	middle	36.41	21.013***	B	35.85	46.306***	B	31.38	34.908***	B	34.48	24.344***	B	138.29	47.926***	B
	low	34.47		A	33.01		A	30.14		A	32.21		A	129.16		A
Logical mathema-tical	high	40.37		C	39.58		C	35.75		C	37.35		C	152.44		C
	middle	36.66	29.895***	B	36.21	58.580***	B	31.49	70.855***	B	34.37	39.249***	B	138.92	67.728***	B
	low	33.81		A	32.60		A	29.13		A	31.75		A	127.08		A
Spatial	high	39.41		C	39.08		C	34.71		C	36.86		C	150.06		C
	middle	36.76	17.059***	B	35.99	42.498***	B	31.72	40.732***	B	34.13	24.712***	B	138.11	42.268***	B
	low	34.50		A	33.27		A	29.62		A	32.54		A	130.03		A
Linguis-tic	high	40.83		C	39.56		C	37.25		C	34.93		C	152.17		C
	middle	36.12	48.461***	B	35.68	66.471***	B	34.25	46.599***	B	32.15	63.466***	B	137.90	85.957***	B
	low	33.21		A	32.58		A	31.52		A	28.75		A	126.11		A
Inter-personal	high	38.65		C	38.23		C	33.46		C	35.74		C	146.13		C
	middle	34.37	34.782***	B	32.79	80.518***	B	30.38	38.952***	B	33.00	26.330***	B	130.59	66.296***	B
	low	29.89		A	29.64		A	26.64		A	29.70		A	115.85		A
Intra-personal	high	40.27		C	38.88		C	34.77		C	37.11		C	150.53		C
	middle	35.73	35.855***	B	35.72	44.358***	B	31.53	53.477***	B	34.23	47.604***	B	137.25	67.401***	B
	low	33.75		A	32.91		A	29.05		A	31.31		A	126.51		A
Natura-list	high	38.19		C	37.57		C	33.27		C	35.89		B	144.64		C
	middle	36.29	9.104***	B	35.40	15.109***	B	31.65	15.200***	B	33.65	15.377***	A	137.22	16.713***	B
	low	34.29		A	33.75		A	29.60		A	32.33		A	130.31		A

***p<.001.

D: Duncan's test (A<B<C).

3. 다중지능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다중지능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 간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r이 .70 이상을 넘는 변인이 없고 VIF계수들도 4.0이상을 넘는 변인이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지능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먼저 친사회적 행동 중 도움주기에는 개인이해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변인의 설명력은 32%정도로 나타났다. 공감하기에는 대인관계지능이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보호하기에는 대인관계지능, 논리수학지능, 개인이해지능이 영향을 미쳤으며 28%의 설명력을 나타났다. 나눠주기에는 개인이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영향을 미쳤고 3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친절하기에는 개인이해지능, 신체운동지능이 영향을 미쳤고 2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협력하기에는 개인이해지능, 언어지능,

Table 3. Effects of Multiple Intelligence on Students' Prosocial Behavior

Variable	Help			Sympathy			Protection			Sharing		
	B	β	t	B	β	t	B	β	t	B	β	t
Musical	.022	.047	.679	.004	.009	.134	.048	.107	1.509	.033	.072	1.015
Bodily kinesthetic	.002	.004	.061	.024	.055	.840	.005	.011	.163	.013	.030	.435
Logical mathematical	.057	.132	1.566	.051	.117	1.380	.072	.175	2.008*	.001	.002	.025
Spatial	-.012	-.027	-.322	.071	.151	1.808	-.014	-.032	-.370	.033	.071	.840
Linguistic	.040	.093	1.083	.069	.157	1.835	-.011	-.026	-.291	.000	.001	.013
Interpersonal	.064	.119	1.507	.128	.236	2.997**	.084	.163	2.013*	.121	.227	2.822**
Intrapersonal	.150	.311	3.896***	.008	.016	.197	.083	.178	2.169*	.130	.266	3.292***
Naturalist	-.019	-.039	-.536	-.049	-.100	-1.366	.006	.014	.180	-.026	-.054	-.732
R^2	.318			.334			.280			.298		
F	8.987***			9.548***			7.489***			8.083***		

Variable	Kindness			Cooperation			Total		
	B	β	t	B	β	t	B	β	t
Musical	.066	.128	1.790	.017	.040	.592	.204	.101	1.634
Bodily kinesthetic	.067	.1400	2.066*	.034	.090	1.342	.148	.078	1.296
Logical mathematical	.005	.011	.128	.063	.164	1.978*	.307	.160	2.131*
Spatial	.041	.081	.946	.010	.024	.281	.161	.080	1.035
Linguistic	.000	.001	.012	.073	.191	2.265*	.192	.098	1.283
Interpersonal	.021	.035	.426	-.038	-.081	-1.033	.415	.174	2.497*
Intrapersonal	.114	.215	2.661**	.102	.244	3.080**	.537	.249	3.530***
Naturalist	.032	.060	.804	-.013	-.032	-.435	-.159	-.074	-1.125
R^2	.267			.309			.500		
F	7.481***			8.631***			17.762***		

*p<.05, **p<.01, ***p<001.

논리수학지능이 영향을 미쳤으며 3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친사회적 행동 총점에는 개인이해지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은 대인관계지능, 논리수학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0%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교생활적응 중 먼저 담임적응에는 대인관계지능과 언어지능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교우적응에는 대인관계지능, 언어지능, 신체운동지능이 영향을 미쳤고 이들 변인은 5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학습적응에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이 영향을 미쳤고 5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규칙 및 행사적응에는 개인이해지능, 논리수학지능이 영향을 미쳤으며 5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학교생활적응 총점에는 대인관계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개인이해지능, 신체운동지능이 영향을 미쳤고 6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4. Effects of Multiple Intelligence on Students' School Adjustment

Variable	Teachers			Friends			Studies		
	B	β	t	B	β	t	B	β	t
Musical	.092	.063	.912	.007	.006	.097	.145	.110	1.885
Bodily kinesthetic	.149	.113	1.704	.152	.140	2.468*	.067	-.054	-.955
Logical mathematical	.133	.100	1.199	.099	.092	1.285	.314	.260	3.675***
Spatial	-.203	-.141	-1.693	.034	.029	.412	.050	.038	.545
Linguistic	.218	.164	1.895*	.202	.186	2.589**	.356	.291	4.029***
Interpersonal	.486	.291	3.689***	.556	.409	6.078***	.200	.131	1.969*
Intrapersonal	.098	.066	.829	-.006	-.005	-.069	.134	.098	1.439
Naturalist	-.107	-.072	-.986	-.065	-.037	-.244	-.087	-.063	-1.079
R^2		.334			.492			.518	
F		9.701***			18.475***			20.746***	

Variable	Rules and events			Total		
	B	β	t	B	β	t
Musical	.079	.061	1.029	.370	.083	1.513
Bodily kinesthetic	.043	.018	.132	.474	.120	2.178*
Logical mathematical	.234	.196	2.729**	.719	.181	2.735**
Spatial	.030	.023	.324	-088	-.020	-.300
Linguistic	.106	.063	.358	.932	.229	3.410***
Interpersonal	.163	.109	1.622	1.374	.274	4.265***
Intrapersonal	.319	.236	3.462***	.610	.136	2.118*
Naturalist	-.159	-.118	-1.889	.590	-.028	-.214
R^2		.505			.610	
F		19.551***			27.271***	

*p<.05, **p<.01, ***p<001.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학교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다중지능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아동의 다중지능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다중지능이 친사회적 행동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분석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4, 5, 6학년 남, 여 아동 36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다중지능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다중지능의 모든 하위변인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인 도움주기, 공감하기, 보호하기, 나눠주기, 친절하기, 협력하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 한 몇몇의 선행연구들(Eisenberg 1992; Lee 2001; Kim 2003; ban 2005; Suh & Kim 2009; Lee 2012)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즉, 다중지능이 높은 아동들이 친사회적 행동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친사회적 행동발달을 위해서는 지적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으로 탈중심화 할 수 있는 지적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적능력이 높은 아동이 타인의 요구, 역할수용, 도와주는 방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중지능이 높은 아동 역시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참여하는데 기초가 되는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다중지능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다중지능의 모든 하위변인이 높을수록 담임적응, 교우적응, 학습적응, 규칙 및 행사적응, 학교생활적응 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다중지능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Yun(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초등학교 아동의 다중지능과 학교생활적응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Jung(2006)의 결과, 아동의 다중지능과 학교생활적응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Kim(2009)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산물을 생산하는 능력인 다중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지기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수하여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해결하는 적응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타나 결과라 생각되며, 다중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아동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중지능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각각의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본 결과 먼저 친사회적행동 중 도움주기에는 개인이해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공감하기에는 대인관계지능이 영향을 미쳤으며, 보호하기에는 대인관계지능, 논리수학지능, 개인이해지능이 영향을 미쳤다. 나눠주기에는 개인이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영향을 미쳤고, 친절하기에는 개인이해지능, 신체운동지능이 영향을 미쳤으며, 협력하기에는 개인이해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이 영향을 미쳤다. 친사회적 행동 총점에는 개인이해지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대인관계지능, 논리수학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개인이해지능은 도움주기, 보호하기, 나눠주기, 친절하기, 협력하기 등 대부분 친사회적 행동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지능은 공감하기, 보호하기, 나눠주기에 영향을 미쳤다. 논리수학지능은 보호하기, 협력하기에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운동지능은 친절하기에, 언어지능은 협력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친사회적 행동 하위변인에는 개인이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을

같은 변인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이해지능과 대인지능이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Lee(2001)의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동들이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고 주변의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친사회적행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기 지식에 기초하여 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타인의 기분, 의도, 동기, 감정을 지각하고 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학교생활적응 중 먼저 담임적응에는 대인관계지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은 언어지능이 영향을 미쳤다. 교우적응에는 대인관계지능, 언어지능, 신체운동지능이 영향을 미쳤고, 학습적응에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이 영향을 미쳤다. 규칙 및 행사적응에는 개인이해지능, 논리수학지능이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생활적응 총점에는 대인관계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개인이해지능, 신체운동지능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대인관계지능과 언어지능은 담임적응, 교우적응, 학습적응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논리수학적응은 학습지능과 규칙 및 행사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신체운동지능은 교우적응에, 개인이해적응은 규칙 및 행사적응에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하위변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대인관계지능과 언어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중지능 중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등이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깊다는 Yun(2005), Jung(2006) 등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로, 이는 아동이 학교에서 원만한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아동이 친구나 교사 등의 기분, 의도, 동기, 감정을 지각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인 대인관계지능을 통해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인 언어지능이 기초가 됨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초등학교 아동의 주요한 사회적 특성인 친사회적 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의 다중지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친사회적 행동에는 개인이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아동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기 지식에 기초하여 잘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타인의 기분, 의도, 동기, 감정을 지각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친사회적 행동을 잘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에는 대인관계지능과 언어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어서 아동이 타인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특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4, 5,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다중지능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학교생활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과 지적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언어력과 논리력에 초점을 둔 IQ로 대표되는 지능검사나 조망수용능력, 역할수용능력 등의 인지발달을 강조하는 관점에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사회적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지적능력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중심의 인지적인 발달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체로서 인간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한계가 있다. 다중지능이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성 및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하고,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동기를 주는 대인관계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중지능 구성요소 중 대인관계지능과 개인이해지능, 언어지능의 발달을 위한 교육방법의 모색은 친사회적 행동 발달과 학교생

활적응 증진을 위한 중요한 교육적인 시사점을 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지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초등학생의 잠재능력을 파악하고 다양한 다중지능 구성 요소의 측정결과를 타당화하기 위해서 지필식 검사와 함께 지능의 질적인 평가 방식인 포트폴리오나 수행평가, 프로젝트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다중지능 구성요소들과 학교생활 적응, 친사회적 행동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중지능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다중지능 구성요소들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중지능이 높은 아동 일수록 친사회적 행동과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다중지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이 타인과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고,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모색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An YB(1985) The charcteristics of adjustment and behavior and their relative variables. Master's Thesis, DanKuk University

Armstrong T(1994) Multiple Intelligences in the Classroom.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NY: Academic Press

Baek SM(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child's multiple intelligenc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Ban NK(2005) The relations of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Chan DW(2003) Adjustment problems and multiple intelligences among gifted students in Hong Kong: the development of the revised student adjustment problems inventory. High Ability Studies 14(1), 41-54

Cho DJ(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multiple intelligence perceived by children.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oi JM(2001) The relationship among multiple intelligences, creativit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Damon W(1988) The moral child: nuturing children's natural moral growth. NY: Pree Press

Eisenberg N(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Y: Academic Press

Eisenberg N(1992) The caring child.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Gardner H(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Y: Basic Books

Ghamrawi N(2014) Multiple intelligences and ESL teaching and learning: an investigation in kg II classrooms in one private school in Beirut, Lebanon. J. Advanced Academics 25(1), 25-46

Jung DH(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child-teacher relationships, multiple intelligences and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Doctoral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ung TH(1998) Teaching-learning activities development based on 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and its effects: rocusing on personal intelligences.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Kim HC(2000a)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im HJ (2000b)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s and home environment variables: focused on the maternal rearing behavior.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Kim MH(1998) 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J Korea Home Educ 16(1), 299-330

Kim MH, Kim YB(1996)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multiple intelligences. Collection Educ Treatises Seoul National Univ 12, 151-183

Kim SJ(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s and school adjustment, achievement motiv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Kim SY(1995) Analysis of family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social competence and prosocial behavior perceived by chil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yo Sung

Kim YK(2003) A study of relation of Montessori's kindergarten of young multiple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Kwon SH(2004) The effects of attachment security to parents and teacher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prosociability.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won SY(2003)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prosocial behaviors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Lee KH(2002) The relationship among multiple intelligences,

creativit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Lee SH(2012) The effect of multiple intelligences program utilizing play on social intelligences and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Lee SJ(2001)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s and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e YM(1997) Multi intelligences theory and integrated units in elementary school. Res Elementary Educ 11, 157-276

Moon SJ(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Moon YL, Kim JH, Ru SH(2002)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career education and 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ark MS(2007) A study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Ru SH(1996) A study on group differeces in perceived multiple intelligences(PMI) and relationships among PMI, IQ and shool acheivemen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 CJ(1995) A study on correlation among school life adjustment, self-concept,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on SH(1998) The effect of multiple intelligence-based instruc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uh YM, Kim JK(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and an only child's multiple intelligences and prosocial behaviors. J Korea Open Assoc Early Child Educ 14(6), 349-369

Yun MR(2005) The relations among multiple intelligence,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children.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